



오후 3시 정기 어린이법회 시간. 자양포교원 원장 이수익(53) 법사가 법회에 앞서 입정을 시키자 떠들던 아이들이 살포시 눈을 감는다. 삼귀의가 끝나자 이 법사가 삼보(三寶)의 뜻을 쉽게 설명한다. "여러분, 부처님과 그 분의 가르침, 스님 이 세가지 보배를 항상 생각하고 착하게 살아야지요." "네에~"

길지 않은 법사님의 법문을 듣는데도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 있지 못한다. 장난을 치고 판 짓을 피우기 일쑤. 그럴 때마다 법사님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꺾박을 준다.

다시 법회가 이어지고 석가모니불 정근, 발원문 및 어린이5계 낭독이 진행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친구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스님과 부모님 말씀 어기지 않고 잘 들겠습니다."

사홍서원과 산화가로 법회가 끝나자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들이 빵을 나눠준다. 빵을 받는 어린이들은 감사의 합장을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뜻을 담은 공양계를 외운다.

▲ 3월 22일 일요일 어린이법회에서 아이들, 자모회 회원들과 자리를 함께한 자양포교원 가족들. 뒷줄 왼쪽부터 딸 소현, 이수익 법사, 아들 원규 씨.

▶ 합창하고 있는 자양포교원 새싹불자들.

빵을 맛있게 먹은 후 아이들은 이소현(23) 지도교사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찬불가를 배운다. 4월 13일 열리는 서울불청 주최 어린이 찬불가대회에 나갈 예정이다 더욱 열심히 부른다. 아이들은 한명씩, 또는 2-3명씩 법단 앞으로 나가 마이크를 잡는다. 나머지 아이들은 따라부르며 손뼉을 친다. 양다실(12), 다미(9), 다인(6) 자매는 이날따라 영어교사인 엄마가 있어서인지 자정해서 화음을 맞춰 부른다.

이수익 법사가 어린이 포교를 시작한 것은 99년 5월 9일 포교원 개원부터였다. 개원 전부터 동네 아이들을 모아 여름불교학교를 운영해 오던 이 법사가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어린이법회를 상설화한 것이다. 89년에 조계종 포교사가 된 이 법사는 직장생활 틈틈이 포교에 나서 무진장 스님을 모시고 도반들과 국정회를 창립하는 등 활발한 신행을 펼쳐왔다. 포교 일선에서 신행을 하다보니 걱정이 점점 자랐다. 부처님 품에서 뛰어 놀 어린이들이 눈을 찢고 찾아도 없었다.

그러나 사찰과 스님들은 무관심했다. 어린이 포교의 상황이 심각함을 절감한 이 법사는 이 때부터 새싹 불자 양성에 나서기로 원력을 세웠다.

이런 원력을 세운 후 자양포교원에서 키워낸 새싹 불자가 자라나 이제 어엿한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되었다.

그렇다면 어린이 및 청소년 포교의 현황은 어떻게 변해있을까. 그 대답은 한 마디로 '점점 더 심각하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불가·영어·학과공부까지...
신나는 법회 만들기 '한마음'
"어린이 외면하면 신도없는 불교 돼"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착하게 사세요”

어린이 포교 앞장
이수익 법사 가족

"헬로우 예브리 원?"
"지난 시간에 배운 영어 노래 한번 해볼까요?"
"더 모여 위 갓 투게더(the more we get together)~"

3월 22일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불림회 자양포교원. 불상이 모셔진 법당에는 아이들의 노래소리와 웃음 소리가 뒤얽혀 활기차게 떠들썩했다.

이날은 영어공부가 있는 날. 양다실(12) 어린이 엄마인 김민정(37) 보살의 지도 아래 아이들이 영어 노래를 배우고 있었다. 노래를 불러보고 싶은 아이들은 법단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독창을 한다. '영어 교사' 김민정 선생은 틀린 부분은 지적해주고 영어 단어 뜻을 반복해서 외우도록 한다.



◇ 어려운 포교여건에서도 주위의 귀감이 되는 어린이법회를 열고 있는 자양포교원장 이수익 법사.

손길이 많이 가는 어린이법회를 포기하는 대신 유치원을 만들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과외공부나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다 보니 절에 잘 오지 않는다. '전멸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2002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린이법회를 실시하고 있는 조계종 사찰은 215개, 지도자 수는 780명, 어린이 수는 7,600여명이었다. 4백만이 넘는 초등학교생 어린이 법회 참석 인원이 1만 명(0.25%)도 되지 못하는 것이 어린이포교의 현주소다.

이수익 법사는 지난 80년대 중반 봄을 이루었던 어린이법회 운영사찰의 감소를 "중단과 스님들의 무관심, 지도자 양성 소홀, 출판 음악 등 문화 콘텐츠 개발에 대한 관심부족 등 총체적 부실이 부른 결과"로 진단했다. 특히 어린이지도자 양성 소홀은 2년 미만의 경력자가 61%에 이르는 결과를 불러 어린이포교 원동력이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이수익 법사는 20~30명이 참석하는 일요일 어린이법회에서, 단조로운 분위기를 살피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키워주기 위해 음악, 국어, 미술, 영어, 에어로빅 등 매주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다. 다섯 명의 지도교사가 필요하다 보니 아들 원규(27, 명지전문대 문장학과)는 국어를, 딸 소현(23) 씨는 음악을 맡아 지도하고 자모회 회원들이 나머지 과목을 맡았다.

이수익 법사와 아들 원규, 딸 소현씨는 어린이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회의 교사대학을 졸업했다. 내년에는 부인 손타순(50) 보살도 교사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다. 온가족이 어린이포교 현장에 나선 셈이다. 그 자신 어린이법회 출신인 원규, 소현씨는 한목소리로 불교계의 관심을 호소한다.

"어린이법회야말로 교세 확장의 근본이며 미래불교를 위한 초석임을 인식해야 해요. 돈만 들고 당장 거둘 것이 없다 하여 등한시한다면 나중에는 '신도 없는 불교'가 되고 말겁니다."

이날 지난해 말 경기도 파주로 이사간 차명자(37) 보살은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에서 김운정(9), 해림(5), 민희(4)를 이곳 포교원으로 데려 왔다. 학부모들이 열성적으로 자녀들을 법회에 빠짐없이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불교 공부와 찬불가는 물론 레크리에이션, 과외 공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잘못했을 때 야단치기보다 인과법문으로 스스로 깨닫게 아이들을 불교에 대한 자부심과 올바른 정서를 갖고 자라나기 때문이다.

이제는 열악한 포교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수익 법사가 보람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만해백일장이나 부처님그리기 대회, 찬불가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많이 받아 올 때도 즐겁지만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부처님 품에서 마음껏 뛰놀다 보면 누구나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 자랍니다. 물론 학부모들이 저절로 불자가 되는 것은 덤으로 오는 기쁨이죠."

글 =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진 = 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자비의 등 지혜의 등”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빛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팔모주름등

보관상태

팔모조림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중 등** **만월등**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연등에 사찰이름을 인쇄할 경우 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더 여드레자사 전화: 0311792-6288, 794-4055 / FAX 0311794-6288